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

(눅14:15-24)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사는 곳에서 산책을 하러 나가는 길이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뭐… 차도 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한적한 그런 길을 아니고 바다로 이어지는 길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상가가 지어지고 그 상가에 카페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놓고 유리창에다는 선팅을 해놓았는데, 젊은 부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찻집 앞 길가에는 차가 한 대 늘 서있는데 하얀색 아주 조그만 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추측이 가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산책을 하거나 어떨 때는 새벽에도 산책을 하고, 또 밤늦게도 산책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꼭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일 년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손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마음이 아파요.
그래 하도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이유를 찾게 되는데, 저는 꼭 그 이유가 선팅에 있는 것 같아요.

선팅에 뭐라고 써 붙였나 하면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라고 유리 칸칸마다 그 글씨를 다 써놓았습니다.
왜 저런 말을 써놓았을까 싶어요.
한방차라는 것은 실상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몸 생각하는 할아버지들 아니면 한방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특별히 그 글귀를 써놓은 것이 한방차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서 바닷가에 이르게 되면 안목이라는 데가 나타나는데, 그 안목은 완전히 커피 거리입니다, coffee street 에요, 커피집이 횟집하고 번갈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집들과 차별화를 아마 도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라고 써놓으면 들어가서 커피 마시겠습니까? 커피를 또 같이 팔기는 팔아요.
그게 참, '한방차보다 맛없는 커피'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한방차보다 맛없는 커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사람이 몇 사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카페를 열어놓고 손님을 초청하듯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잔치라는 게 뭐냐?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구에 가까이 와있는 지구와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붙어있게 된 그 천국을 큰 잔칫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잔칫집에 손님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써 붙인 이 집에 한 사람도 가 앉아있지 않은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큰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한 손님들을 부르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간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 다섯 겨리, 즉 열 마리의 소를 샀습니다,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갔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핑계 같아요.

밭을 보러간다? 아니 사기 전에 밭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둘러보고 농사가 잘 지어질 것 같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 다섯 겨리, 열 마리를 사면서 소를 시험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가도 장가갔으면 이제 된 거지, 장가간 게 어디로 다 도망갑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 장가간 게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핑계를 댈까요?

이게 다 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허리띠를 졸라 돈을 모으고 모아서 밭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가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밭을 샀는데 너무너무 좋고, 그 밭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이 몰려오니까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밭 보러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자시고 할 마음이 아닌 것은 내 밭을 샀다, 이게 웬 말이냐?'

내 사업을 시작했고 큰 사업장을 내가 마련하게 되었다, 아니면 큰 집을 샀다,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집 사갖고 나가서 사방으로 돌아보면서 '어, 이게 내 집이야!' 이 기쁨, 이 만족.

자동차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에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우리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하자, 내가 한턱 쏠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간다는 거냐 하면, 아버지가 스물다섯 생일선물로 아반테 차 한 대 사줬습니다.
내 차가 생긴 거예요, 지금 술 마시게 생겼습니까? 술 먹으면 운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술 먹으러 안 가고 드라이브하게 돼요.
이게 바로 소 열 마리 사가지고 시험하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장가간 사람도 지금 잔치에 참여할 그런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색시가 이렇게 예쁘고, 색시와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잔치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 기쁨 말고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인 겁니다.
집에서 동네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온갖 기쁨이 그 여름성경학교에 다 있었습니다.
환등기 보여주지요? 인형극 보여주지요? 아, 신기합니다.
거기다 온갖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주지요.
여름성경학교가 옛날에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전화하십니다, '여름성경학교 좀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기간에 영국으로 연수를 하러 가게 돼있는데요' '그 기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설악산 워터피아에 가게 돼있는데요'
여름성경학교를 만들어놓았어요, 만날 여름성경학교를 말씀의 잔치라고 하고 잔치를 열어놓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이유는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부흥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해요.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그 부흥회가 다 차지 않습

니다.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부흥회에 안 갑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천국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 천국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이라면 여전히 천국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천국을 기쁨으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밭을 사면서 밭 산 기쁨 때문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밭을 사는 것보다 더 맛있는 천국, 기쁨!' 이게 바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보다 맛있는 천국',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고, 일류대학 들어가고, 이런 '형통보다 맛있는 천국', 이게 바로 천국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크게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분명히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라는 카페와는 다르게, 그 카페는 한방차보다 맛없는 커피라도 커피를 계속 팔고 있었지만, 이 천국은 '돈보다 맛있는 천국' '돈보다 기쁜 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돈의 기쁨을 버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밭 때문에 생기는 기쁨, 소 열 마리 사서 생기는 그 기쁨, 장가가서 색시 때문에 생기는 기쁨

을 뒤로 보류하고 뒤로 제쳐놓아야 이쪽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참, 이거 곤란하지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앞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무릇 하나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들이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나라가 임하면 다윗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밭을 많이 사게 되고, 이웃나라의 땅까지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소 열 마리 사는 것처럼 소 백 마리 살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더 확고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잔치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돈 버는 기쁨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걸 맛있어하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그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기쁨 말고 천국으로 생기는 기쁨이 따로 있어서 이 따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한 자들이 거절하자, 시내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못 보는 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당시 상황에 있어서 사회의 loser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 인간이 살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정한 가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정한 가치를 가질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인데, 이 네 부류,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그리고 저는 자, 이들은 이 땅에서 기쁨거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거리가 없는 자들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쁠 거리가 많잖아요, 밭을 사서 기쁘고, 소를 열 마리나 사서 기쁘고, 아주 예쁜 색시에게 장가가서 기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쁠 거리가 있는 자들, 아직도 돈 벌어 기쁘려 하고 있고, 아들 잘 키워서 기뻐하려 하고 있고, 몸 건강히 관리해서 기쁘려 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돼서 기쁘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돈 버는 것보다 기쁜 천국기쁨, 이 땅 위의 어떤 형통보다도 기쁜 천국기쁨, 이게 캐치프레이즈라는 겁니다.
골라내라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산 기쁨에 너희가 빠져버려서 천국기쁨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구원이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러서 천국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나의 가난한 것을 극복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건 결국은 이 땅에서 기쁨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생기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생긴 모든 기쁨보다 더 맛있는 천국기쁨을 주려고 오셨고, 천국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땅의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난한 자인 것처럼, 돈 버는 기쁨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몸이 불편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천국을 향할 때,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기쁨을 향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참여하려면 이 지구 위에서 발생하는 기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위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하늘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의 특성이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가까운 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잔치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왜 '커피보다 맛있는 한방차' 카페에서는 비록 한방차보다 맛은 없지만 커피도 파는데, 천국도 돈을 좀 주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건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이 런던올림픽에서 3, 4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지요, 우리의 가슴은 터져버릴 것처럼 좋았고, 일본인의 가슴은 터져버릴 것처럼 슬프고 분노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고 누구와 더불어 기뻐하느냐는 원수냐 아군이냐를 결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내가 A B C라는 남자가 있는데, A라는 남자로 기뻐하겠다는 것은 B와 C는 버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놓고 B라는 남자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탈선이라는 얘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서, 아랍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에 두 번 초청해서 응하지 않으면 그건 선전포고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 안으로 들어가면 기쁜 것이지만, 기쁨 바깥은 어둡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누릴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려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돈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심성이 있어요.
이 세상일이 잘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심성이 있고, 밭 사면 기뻐하고, 소 사면 기뻐하고,

예쁜 색시 얻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심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나라의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이건 무서운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안 기뻐하면 말지 뭐…'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기쁨에 대해서 죽게 해달라고 하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십자가 붙잡고 하는 이 기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사랑을 기쁨의 선택을 통해서 표현하시므로, 돈 버는 것보다 기쁜 천국, 형통하는 것보다 기쁜 천국, 건강한 것보다 기쁜 천국,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계시는 예수님이 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금 가질 수 있어서 가질 때, 돈 건강 형통, 이 모든 것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좌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올라서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